

05 평등한 사랑, 요셉

아굽은 아내가 4명이었어. 아굽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해줬어. 옷도 좋은 옷을 입혔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줬어. 아빠가 요셉에게만 잘해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 아빠의 사랑을 요셉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았거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꿔다면서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 자세히 들으니까 엄마, 아빠,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어. 형들은 안 그래도 더 미웠던 요셉이 더 미워졌어.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왔어.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주변을 둘러봤어.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자 누군가 말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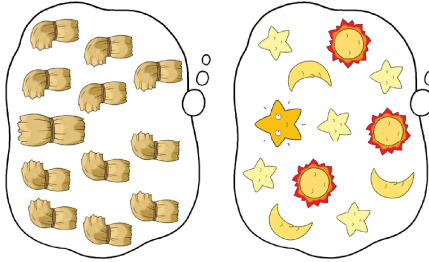
“꿈쟁이 요셉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 까 요셉을 죽이자!”

“그래,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빠도 믿을 거야!”

“요셉이 없으면, 우리도 아빠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첫째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 첫째 형의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 ○○아,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지? 아무리 미워해도 동생을 노예로 팔면 안 되잖아.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성경에 요셉을 형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빠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와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어. 어려움 없이 지낸 요셉이지만, 힘든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형통’이라는 말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더 잘 살게 됐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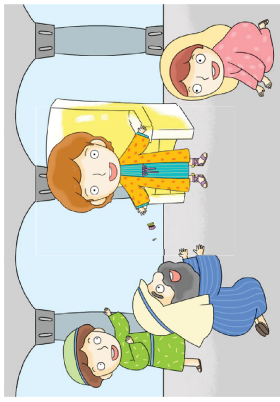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어. 하지만 요셉은 결혼한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서 감옥으로 보냈어. 요셉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 요셉은 노예에서 이제 죄수가 되었어.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형통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에게 간수의 모든 일을 맡겼어.

어느 날,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꿈을 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어. 두 사람 모두 왕의 신하였는데, 한 사람은 삼 일 후에 감옥에서 나가서 왕의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죽는다는 내용이었어. 삼 일이 지난 후에 정말 요셉의 말처럼 그렇게 됐어.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꿔는데 그 꿈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때 왕의 신하가 감옥에서 꿈을 풀이해준 요셉이 생각났어.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아주 잘 해석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왕은 요셉을 불렀어.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풀이를 했어. 그 말을 들은 왕은 요셉을 총리로 제위서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도록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으라고 말했다.

노예에서 죄수로 지내던 요셉이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총리는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야.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짜증나지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이 잘 되도록 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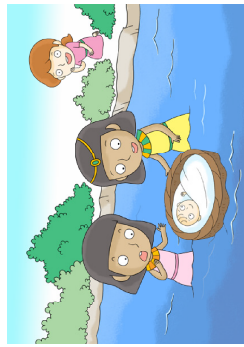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셨어요. ○○이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화내거나 짜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6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

이집트에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어. 세로온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는 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

이집트 왕은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라고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이 일도 체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집트 왕은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버리라고 했어.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강에 버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아쁜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나일 강에 아이를 버렸어. 그때 엄마 아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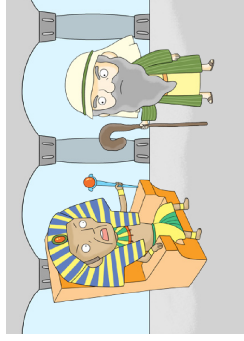


그 시절에, 레위 지파에 남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이 엄마 아씨도 나일 강에 아이를 버렸는데,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했어. 공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에서 건져 아들로 삼아서 키웠어. 이 남자 아이가 누굴까? 맞아. 바로 모세야.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야.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멋진 왕자로 잘 자랐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화가 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죽었어.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쳤어.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 80세가 된 모세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는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갔어.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야. 신기하지? 모세가 한참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산을 벗으라”

모세는 무서워서 엎드렸어. 하나님이 우리 ○○이 이름을 부르면 어쩌까? 참 좋을 텐데.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 사람을 죽여서 이집트에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집트로 갈 수 있겠어. 지금 왕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데, 모세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 가서 새로운 이집트 왕을 만났어.

“왕이시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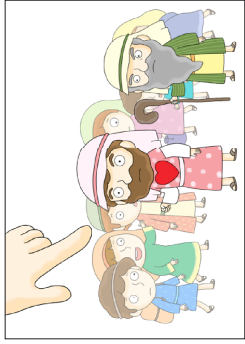
이집트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허락하지 않았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았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집트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집트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재앙으로 이집트 왕의 아들까지 죽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모으자 60만 명 정도 됐어.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 모세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7 강하고 용기가 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



자였던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지 잘 몰랐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이 좋았어. 하지만 모세처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또 말씀하셨어.

“너는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기로 다짐했어.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한 곳은 어리고 성이었어. 어리고 성은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었어. 어리고 성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어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고민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하면 어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성을 한 번씩 돈다는 게 말이 되니? ○○이는 어떻게 생각해. 성을 돌면 이길 수 있을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될 거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리고 성을 돌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히 어리고 성을 돌았어. 어리고 사람들도 성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지? 이상하네. 당장 칼을 들고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성만 빙빙 돌고 있지?”

“아~ 어리고 성이 튼튼하니까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만 돌고 있지. 어디 들어올 때 없나 살펴보는 거 아니야?”

“어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그런 건 못 찾을 걸”

“하하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지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6일이 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일곱 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오늘은 성을 7번 돌아라. 마지막 일곱 번째 돌고서는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질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리고 성을 돌았어. 어리고 사람들도 성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 그런데 그 날은 한 바퀴를 돌고 계속 돌았어. 사람들이 물려들었어.

“아~ 오늘은 한 바퀴가 아니야.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몇 바퀴 돌고 있지”

“이제, 여섯 번째야”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함성을 질렀어.

“와~”

그러자 갑자기 어리고 성벽이 무너졌어.

“와르르~ 팽팡~”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고 성만 돌았는데, 어리고 성이 무너진 거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 너무 멋진 하나님께 이빨랑 기도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8 큰 용사가 된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모아두면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을 짓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면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셨어. 오늘 아빠가 이야기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야.



어느 날, 기드온이 숨어서 먹을 것을 수확하고 있었어. 왜 숨어서 했을까? 맞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빼앗을까봐 그런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했어.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

“아니, 나처럼 약한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도 안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 기드온이 2만 2천 명을 보내고, 1만 명이 남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시험을 봐서 남은 사

람만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셨어. ○○아, 1만 명 중에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300명이었어. 전쟁을 할 때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300명만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300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고 좀 무서웠어.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어.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어.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꿈에 보리씩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을 덮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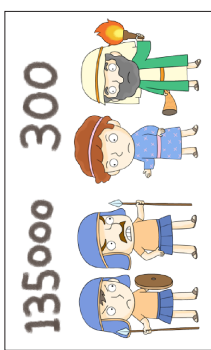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기드온의 칼인 거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벌하시는 거 아닐까?”

기드온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 100명씩 나눠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담은 향아리를 들고, 미디안 군대를 에워쌌어.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향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 나팔과 향아리 깨지는 소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셨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300명이었지만, 3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기에 비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이겼어.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

아기했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힘이 세고 큰 군대였던 미디안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야. 약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됐어. ○○이도 비록 어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못 할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으니깐요. 하나님! ○○이가 비록 어린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가 언제 어디 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